

연중 제28주일

제1독서 : 이사 25, 6-10a

제2독서 : 필립 4, 12-14, 19-20

복 음 : 마태 22, 1-14

순정이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많지만
뽑히는 사람은 적다.”

(마태 22, 14)

강론

소리

놓쳐버린 기회

김진룡 신부 /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누구에게나 한 번쯤 놓쳐버린 기회 때문에 밤을 지새보기도 한다. 대학입시, 결혼, 자녀출산, 그리고 입신출세 등 굵직한 한 개인의 사건들만 놓고도 많은 사람을 여기에 포함시켜도 되리라. ‘그때 나는 이러해야 했었는데’라는 후회는, 그 사건으로 내가 보다 더 발전적인 방향으로 전환할 기회에 대한 아쉬움이자 미련이다.

루가복음사가의 병행귀절(루가 14, 15-24)과는 달리 마태오 복음사가는 “임금의 아들 혼인잔치의 비유”에서 이 비유를 이스라엘의 역사와 빗대어 전개시키고 있다. 종들의 파견, 파견된 종들에 대한 초대된 자들의 부당한 처신, 그러면서 반전되는 초대되는 자들의 무작위적인 확대, 이런 말들을 들으면서 신앙인인 우리들은 참으로 하느님의 넓으신 자비를 새삼스럽게 확신하고 기뻐하게 된다.

초대받은 이의 기쁨이란 말을 하면서도 자꾸 뭔가 뒤를 잡아 끄는 듯한 느낌이 든다면, 그것은 초대를 받았으면서도 그 기회를 스스로 놓쳐버린 자들에 대한 생각 때문이다. 왜 그들은 ‘임금님 아들의 혼인잔치’ 상의 초대되는 기회를 놓치고 말았을까?

복음사가의 표현대로라면 그들은 ‘그 일이 대수롭지 않았고, 보통의 날처럼 하던 일을 계속하고자 했으며, 그 초대가 오히려 자신들에게 방해가 되었기 때문이다’고 말한다.

소신있는 선택이란 어제든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우리곁에 있다. 그러기에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이란, 우리의 선택이 하느님 나라의 초대에 응하는 자의 대답인지를 먼저 판단하는 일과, 이루어진 선택에 대한 반성을 통해서 ‘혼인잔치에 들기 전에 예복을 갖추어’ 다시 시작해 보는 일일 것이다. 왜냐하면 주님께 대한 믿음 안에서, 하느님의 나라는 우리에게 무엇보다도 우선적인 가치이기 때문이다. 놓쳐버린 기회란 ‘선택의 잘못’뿐만 아니라 ‘반성의 기회’마저도 스스로 저버림이 아닐 수 없다.

“사실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많지만 뽑힌 사람은 적습니다.”(마태 22, 14)

역사로부터 교훈

우리는 역사(歷史)를 지난날에 대한 기록, 즉 옛날 이야기라고 말한다. 옛날에 무슨 일이 있었는데, 과정은 이렇고 결과는 이러했다는 식으로. 그러나 옛날 이야기는 단순한 흥미거리만이 아니라 은연중에 배우고 따라야 할 교훈을 담고 있다.

그런데 역사를 이해하는데 빠뜨릴 수 없는 조건이 하나 있다. 그것은 보는 사람의 시각에 따라, 지난날의 일들이 다르게 해석될 수 있다는 점이다. 보는 사람의 위치에 따라 오로지 한 곳에만 그대로 있는 십자가의 모양이 다르게 보이듯이.

요즘 신문이나 방송을 보면, 마치 전쟁이라도 일어날 듯이 험악하다. 원인 제공은 물론 북한에서 했다. 그러나 북한의 주장과 우리 정부의 주장은 전혀 다르다. 진실은 하나인데, 어찌해서 남과 북은 서로 다른 주장만을 하는 것인가.

앞으로 얼마간의 시간이 지나면 밝혀질 진실을 가지고, 하나가 되어야 할 남과 북이 전쟁이라도 불사하겠다는 듯이 으르렁 거리는 모습은 안타까움을 넘어 비애감마저 갖게 한다. 불과 46년 전, 아직도 그 당시의 비극을 체험하거나 기억하는 사람들이 생존해 있는데, 다시 전쟁을 치르겠다는 것인가. 서로가 한 발씩 아니 열 발, 백 발을 양보해서라도 극한 상황은 피해야 한다. 그러지 못하면, 우리는 역사로부터 교훈을 받지 못하는 민족이 될 것이다. **땀**

순정이 산책



2000년 대희년

사친가(思親歌)를 부른 사람들

김진소 신부 / 호남교회사 연구소

천주교 신앙이 우리나라에 전해지자 유학자들로부터 맨먼저 공격을 받은 교리는 영혼에 관한 문제였다. 유교는 천주교와 같이 사람은 혼(魂, 영혼, 정신)과 백(魄, 육신, 신체)으로 구성된 것으로 이해했다. 그러나 혼은 신체에 의지하고 있어서 혼자서 살아 남을 수 없고, 사람이 죽으면 혼백은 서로 갈라지고 백(신체)이 썩어 없어지면 혼은 흩어져 언젠가 무(無)로 돌아가는 것으로 알았으니 영혼불멸이란 당치않은 말이었다.

그러나 천주교는 주장하기를 영혼은 혼자서 자립할 수 있고 사후에 육신은 썩어 없어져도 영원불멸한다고 했다. 영혼은 다름아닌 껍데기로 보이는 내가 아니라 내 속 깊이에 있는 '나'였다. 부모는 "자식 곁을 낳지 속은 못낳는다"는 민초들의 말처럼 한줌의 흙으로 돌아갈 내 껍데기를 낳으신 분이 육신의 부모요, 깊은 속의 '나' 곧 영혼(정신, 열)을 낳아주신 부모는 하느님이었다. 하느님을 참생명의 부모로하여 태어난 영혼은 존귀하기가 하느님과 비슷하였으니(영언여작), 영혼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나 그 품위가 하느님 버금가게 존귀한 것은 당연했다.

믿음의 조상들은 사람이란 영혼의 부모이신 하느님의 정신·열·뜻대로 살아야 할 팔자로 태어난 것으로 인식하고, 만약 이런 천명(天命)을 배반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말하는 짐승이요, 천지의 죄인일 뿐 아니라 숨쉬고 살아있을 망정 죽은 목숨이나 진배없는 것으로 여겼다. 그리고 사람의 참 삶은 언젠가 사망으로 끝날 육신의 짐승같은 본성·탐욕·이기심으로부터 죽는 그 때부터 진정한 생(生)이 시작하는 것으로 알았다. 조상들이 긴장하며 살았던 윤리생활, 그리고 순교까지 따지고보면 인간의 존

엄성, 천자(天子)의 품위를 지키기 위한 최선의 도리였다. 육신의 욕망이 쫓는 가치보다 정신적인 가치에 목적을 두고 강조하며 살았기에 인생이 고통으로 여기거나 행복으로 삼는 것들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며 "빈궁재화(貧窮災禍) 많다 한들 몇 해까지 근심하며, 부귀영화 누린다 한들 몇 해까지 즐기오리"하고 천연스레 노래할 수 있었다.

우리 민족은 어느 민족보다 부모에 대한 애정이 강했다. 부모는 죽음으로 나와의 인연이 끊기는 게 아니라 영원히 함께 살며 내 마음 깊숙한 곳에 가까이 계시면서 내 삶을 함께 사시는 것으로 생각했다. 믿음의 조상들은 영혼의 부모이신 하느님에 대한 마음 가짐이 그랬다. 정이 없으면 사랑하지 않듯이 믿음의 조상들은 하느님을 교리의 지식이나 개념으로가 아니라 정으로 믿고 사랑했다. 내 생명의 뿌리요 나를 희생과 사랑으로 키워주신 부모의 정을 꿋꿋이 만만 그런 칼이 있거덜랑 내놓아 보아라. 그게 믿음의 조상들이 하느님께 가진 정이었다.

당시 사회가 부모께 대한 효(孝)를 최고의 가치 덕목으로 여겼듯이 하느님께 대한 효경(孝敬)은 이 세상 최고의 가치 덕목이었다. 천자(天子)들이여 효자가 육신의 부모께 효도하듯 하느님에게 그렇게 해보아라. 순교가 영웅적인 행위가 아닌 것을 알게 되리라. 효도의 모범이신 효자 예수님의 효행은 당신 아버지의 뜻을 즐겁고 온유한 마음으로 정성껏 받들어 실행하는 양지(養志)였다. 육신을 동여맨 탐욕을 풀고 마음 속으로 한사(限死)코 하느님께 효도하던 우리의 조상들은 사친가(思親歌)와 같은 「주의 기도문」을 「서편(西便)제」로 부르며 고난의 세월을 지루한 줄 몰랐다.

대건관광 여행사

가을맞이 새 상품으로 여행자들을
편안하게 모시는 대건관광여행사
강예순(프란치스카)
김욱(바오로)
점용시 수성동 종삼병원 앞
점용시 상평동 공설운동장 앞
☎33-0877~8, 32-3893~4

연지곤지 웨딩 이벤트

드레스 35만~40만원
<신부화장, 부케, 폐백옷 무료>
유순이(가티리나)
전동성당 사내버스 승강장 앞
☎(주)82-2347 (야)225-5755

김희민 정형외과

뼈, 관절, 척추, 신경
최신물리치료기 도입, 입원실
김희민(루가)
남전주 전화국 앞 (구 영광유소자리)
☎226-7600~1

진도 패션 전주점

모피, 무스푹, 남성복 전문매장
· 연중무휴
손한성(바오로) · 정정민(가티리나)
전주시 고사동(구)역전오거리 천보당
☎231-2005~7

잡간

전주 성심·개교 50주년 맞아

우리 교구에서 세운 전주성심여자중·고등학교가 개교 50주년을 맞아 축제와 기념식을 가졌다. 전야제 성격을 띤 축제는 선배 동문들과 재학생들이 함께 어우러져 엮어낸 예술제로, 두 차례의 공연이 전북학생회관에서 있었다. 개교기념일은 10월 3일에는 8백여 동문들이 참석한 가운데 모교 강당에서 축하미사와 기념식을 갖고 옥잠화 동산 성모상 축복식에 이어 축하잔치를 열었다. 전날부터 간간이 빗방울이 옷깃을 적시는데도 오랜만에 퇴임한 노스승과 친구들을 만나서인지 마냥 축제 분위기였다.

성심학교는 1946년 8월에 설립인가를 받아 그해 10월3일에 개교했다. 그러나 실질적인 태동은 1926년 당시 전주본당(현 전동 본당)의 구마슬 신부가 연해성강습소라 하겠다. 그 뒤 이학수 회장의 전담 기증과 그의 아들 이춘화(토마스)의 교실 및 수녀원 건축 봉헌이 있어 1938년에 해성성심소학교를 개교했으나 일제는 1945년에 학교를 폐교했다. 해방이 되자 다시 성심여학교의 설립을 위해 김금석·이인석·이진규·이완규·이광규·조행풍과 전동 본당 교우들의 봉헌이 있어 오늘의 성심학교를 있게 했다.

이 날 기념식에서는 학교 설립의 주춧돌이 된 고 이춘화·학교를 반석 위에 자리하게 한 고 김규승(전 교장)·학교 육성의 밑거름으로 산 유경옥(전 서무과장)에게 공로패를, 학교 초창기에 애쓴 이상용·박승우·김영옥(수녀)선생과 이인석(전 사친회장)에게 감사패를 수여했다. 한편 총동창회의 후원으로 그간의 역사를 화보 중심으로 엮어 「성심 50년」을 펴냈다. 그간 3만 4천여 졸업생을 배출한 성심학교는 현재 중·고 각각 24학급에 2,435명의 학생이 재학하고 있다.

교구 및 제 단체 소식

1. 축! 견진: 10월20일(일) 오전 10시30분, 용머리 성당
 2. 교구장 추계 주교회의 참석: 10월14일~18일, 한국천주교 중앙협의회
 3. 전교주일 2차헌금: 10월20일(일) 각 본당에서 실시합니다.
 4. 가톨릭 사진가회 출사: 10월20일(일) 오전 7시 가톨릭센터 회원을 모집합니다. 문의 ☎ 85-0041(홍보과)
 5. 사회교정사목 군산후원회 월례미사: 10월14일(월) 오전 10시30분, 나운동 성당
 6. 김요안 신부 주소: 우635-800 경남 창원군 창녕읍 조산리 사서함 25호 충열대성당 ☎ (0559) 32-6167
 7. 사제 어머니회 모임: 10월20일(일) 오후 2시, 전동 성당 총연관
 8. 사제 아버지회 모임: 10월15일(화) 오전 11시, 전동성당 총연관
 9. 성직자 묘지 미사: 10월14일(월) 오전 10시30분 치명자산 성직자 묘지
- * 축! 영명: 10월14일(성갈리스도) 정태현 신부님
19일(십자가 성바오로) 김준호 신부님

요심이 (1207) 김병오



동정성모회
성소피정(일반성소자)

- 일시: 10월19일~20일 오후 5시
- 장소: 서울 수련소(☎685-7225)
- 회비: 10,000원
- 문의: (0653) 841-0714

한국 외방 선교수녀회
성소 피정

- 일시: 10월26일(토)~27일(일) 오후 4시
- 장소: 부산 부곡동 수녀원
- 신청: ☎ (051)514-1773 (10월23일까지)
- 회비: 7,000원

덕진 삼익피아노
(서정우 특약점)

- 국가공인 1급 A/S 지정점
- 36개월 할부, 중고보상교환
- 서정우·이혜경(글리라)
- 북전주전화국←→법원 중간
- ☎ 253-3232, 254-2631

015 팔달통신
- 전북이동통신 팔달로 대리점 -
휴대폰, 카폰, 호출기

오 현 중(스테파노)
유 미 숙(마르타)

전주 오거리 국민은행 옆
☎ 84-0015~6

영창피아노 전주 총 전시장
A/S 전문점

- 10개월 무이자 판매
- 중고 피아노 교환 우대
- 신자분 특별우대

전상진(베드로) 유명숙(요안나)
구서중로타리 동서증권 맞은편
☎ 252-0103~4

서울 성가 소비녀회
성소자 피정

- 일시: 10월26일~27일
- 장소: 수녀원 교육관 (성북구 정릉1동10)
- 문의: ☎ (02)940-5928, 5828
- 마감: 10월20일(세체주일)
- 회비: 10,000원

■남전주지구 본당소식■

*** 노송동** 주임신부 82-9663 사 무 실 82-9661 주임신부 범 영 배
F A X 82-9664 수 녀 원 82-9662 사목회장 김 동 주

- ◎ 10월은 로사리 성월(전교의 달)입니다.
- 1. 본당의 날 행사에 수고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 2. 가정방문: 16일(수) 후 2시-중노 7반
17일(목) 전 9시30분-중노8반
후 2시-중노 9반
- 3. 전례봉사자 교육: 13일 공식미사 후, 대상-전신자
* 특히 각 구역별 전례위원 및 전례에 단 한번이라도 봉사하신 분은 필히 참석바람.
- 4. 모임: ①장우회, 대건회-오늘, 공식미사 후
②빈첸시오회-16일, 어머니미사 후
③자비의 모후Cu.-20일, 공식미사 후
- 5. 다음주일(20일)은 전교주일: 2차 헌금 있음.
- 6. 축! 혼인: 20일 12시
신랑-이태호(아오스딩), 신부-이정진(로사)
- 7. 금주 전례: 새벽-중노3구역, 저녁-중노4구역
공식 안내-대건회, 해설-전경숙, 독서-①서남석 ②유제간
신자들의 기도-서용문, 박운순. 봉헌-장성복 부부
- 8. 차주 전례: 새벽-남노구역, 저녁-동진구역
공식 안내-M.E. 해설-손만술, 독서-①송석창 ②윤은희
신자들의 기도-이수원, 윤경자. 봉헌-오점영 부부
- 9. 금주 청소: 중노 3, 9반 10. 차주 청소: 중노 10, 11반

□ 지난주 봉헌금: 884,850원 □ 교무금: 1,103,000원
□ 2차헌금: 326,000원

*** 복 자** 주임신부 86-3453 사 무 실 86-3455 주임신부 정 승 현
수 녀 원 86-3454 사목회장 박 상 기

- 1. 다음주일은 전교주일: 2차헌금 실시
- 2. 북한 수재민을 위한 성금: 총 1,068,000원 송금-참여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 3. 이 가을로 수녀님 휴가: 14일~19일
- 4. 어린이장 잔치: 연극, 중창 장려상(학생 32명, 교사 3명 참가)
* 자모회에서 맛있는 점심을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5. 중·고 성가경연대회: 중창부문 은상(소형 전자 키보드)
(학생 15명, 교사 4명 참가)
* 성모회에서 맛있는 점심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6. 금주 모임: ①요새회-공식미사 후
②꾸리아-후 2시
③청년회-저녁미사 후
- 7. 주간 모임: 성모회-17일(목) 전 10시
- 8. 차주 모임: 빠스카회-공식미사 후
- 9. 성당 청소: 19일(토) 구세주의 모친Pr., 바다의 별Pr.
- 10. 금주 전례: 해설-김순영, 독서-이준철 부부,
봉헌-배영환 가족
- 11. 차주 전례: 해설-형일순, 독서-육종만 부부,
봉헌-조백환 가족

□ 지난주 봉헌금: 684,350원 □ 교무금: 1,393,000원

*** 상 관** 주임신부 85-6654 사 무 실 85-6652 주임신부 김 병 엽
F A X 85-6652 수 녀 원 85-6653 사목회장 강 덕 용

- ◎ 10월은 로사리오(전교의 달) 성월입니다.
- ◎ 정성된 기도와 봉헌(교무금, 주일헌금)은 신자의 의무입니다.

- 1. 금주 모임: 안나회-공식미사 후
- 2. 차주 모임: 새영세자모임, 성가대, 애령회 봉사자모임
- 3. 장년회: 19일(토) 후 7시 30분, 성당
- 4. 주일학교 가을 소풍: 오늘, 천호 성지-맑은 관심 바람.
- 5. 성소후원회비 납부: 구역장님께 납부바람.
- 6. 성가에 관심있으신 분 환영: 수녀님, 전례부장에게 신청바람.
- 7. 성체강복: 17일(목) 저녁미사 중
- 8. 성당 청소: 금주-셋별Pr., 차주-평화의 모후Pr.
- 9. 금주 전례: 해설-김미남, 독서-①박귀철 ②김금자
봉헌-김완식 가정
- 10. 차주 전례: 해설-김영진, 독서-①이옥동 ②이석남
봉헌-김단오 가정

□ 지난주 봉헌금: 388,380원 □ 교무금: 393,000원

*** 서학동** 주임신부 84-8307 사 무 실 86-4929 주임신부 이 중 원
수 녀 원 84-2276 사목회장 민 범 부

- 1. 예비자 입교식: 20일(일) 공식미사 후
* 입교 대상자는 빠짐없이 참석바람.
* 신청서-사무실
- 2. 금주 모임: 프란치스코삼회-오늘 후 2시, 강당
- 3. 축! 혼배: 오늘 12시
신랑-이영철(글레도), 신부-김정훈
- 4. 금주 전례: 공식미사 해설-송정옥(로사)
독서-①유철갑(베드로) ②이서화(보나)
- 5. 차주 전례: 공식미사 해설-이주철(야고보)
독서-①김현필(베드로) ②송영완(수산나)
- 6. 미사봉헌: 금주-11반, 차주-12반
- 7. 청소 안내: ①금주-사랑의 생Pr.
②차주-상아탑Pr.

□ 지난주 봉헌금: 1,068,100원 □ 교무금: 1,785,500원

*** 전 동** 주임신부 81-0098 사 무 실 84-3222 주임신부 김 봉 회
보좌신부 82-7245 수 녀 원 82-9234 보좌신부 송 영 진
F A X 82-6232 유 치 원 84-8347 사목회장 주 환

- 1. 금주 모임: ①자모회-전 10시
②일치의 모후 꾸리아-후 2시
③요새회-후 6시 ④사모회-후 8시
- 2. 주간 모임: ①사베리오회-16일 후 7시30분
②구역반장 모임-17일 전 11시
- 3. 유치원 운동회: 20일, 성심학교
- 4. 플로리아 성가대 단원 모임: ①대상-20,30대 청년 형제 자매
②연습 시간-매주 화요일 후 8시, 일요일 후 6시
③장소-본당 2층 성가대석
- 5. 감사헌금: 이천이(세실리아)-오만, 진일탁(요한)-사십만
- 6. 차주 모임: ①전교 주일 2차헌금
②바느질의 성모 꾸리아-후 2시
③청년회-후 8시
- 7. 예비자 교리 안내
화요일 후 8시-대학생, 청년반
수요일 전 10시-노인반
목요일 후 8시-직장인, 성인반
토요일 후 4시-중·고생반
일요일 전 9시-일반인 남녀

※ 성지개발 헌금 정성껏 봉헌 바랍니다.

□ 지난주 봉헌금: 2,447,250원 □ 교무금: 6,125,000원

*** 평화동** 주임신부 232-5001 수 녀 원 232-5004 주임신부 이 상 섭
F A X 232-5003 사 무 실 232-5005 사목회장 강 상 근

- ◎ 본당 성지순례 청양 줄무덤: 13일 7시 30분
- ◎ 축! 결혼: 20일 1시20분 목원예식장(국실),
신랑-임준환(프란치스코), 신부-김현희

- 1. 주간 모임: ①제대회-15일(화) 10시
②사랑의 성소모임-18일(금) 어머니미사 후
- 2. 차주 모임:
①임마누엘, 한빛, 노을, 성소후원회-공식미사 후
②청년회-저녁미사 후
- 3. 가정 방문: 15일-11구역(중공 4단지)
16일-12구역(중공 5단지)
- 4. ①성전 신축 봉헌금 신인구좌(1구좌: 100만원)
김동국2, 임승희2, 김학근2, 최용운1, 한형수1, 안경순1, 권인
순1, 윤성복1, 김경원1, 오금애0.5, 이정이0.5, 김종환0.5,
최완봉1, 송영자0.5 소계: 15, 총계: 430.1
②성전신축봉헌금 납부: 한형수50만, 김봉근5만, 김황근10만,
김명호20만, 김학근3만, 박용업10만, 김봉례20만, 국경희1만,
김광춘2만, 권인순10만, 엄금례2만8천, 이정이1만, 김봉운2만,
김복순2만, 김종환10만, 유문자1만, 최인숙20만, 박순자2만,
안인순4만, 2구역5반회10만, 임생원2만, 타본당 이철승 20만
소계: 1,878,000, 총계: 61,845,020

□ 지난주 봉헌금: 1,606,500원 □ 교무금: 1,819,500원